

2012. 8. 15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2년 8월 1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

복지정책과장	이충열	3707-9150 010-6298-6451
복지협력팀장	신상하	3707-9163 010-5798-6752
담 당 자	김정수	3707-9210 010-2991-5521
	박상용	3707-9156 010-9040-5449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12매
인포그래픽 2매

서울시, 서울시내 12만 보훈가족 대우·예우 강화

- 광복절 맞아 15대 주요 사업 담은 최초의 「서울시 보훈종합계획」 발표
- 참전유공자 5만여 명 명예수당 월 3만원→5만원, 애국지사 44명 예우수당 신설
- 기념일 위문대상 매년 2천 명씩 확대, 문화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 위로
- 보훈병원 인근 3개지구 공공임대주택 755호 특별공급, 전세 '보훈의 집' 운영
-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시립병·의원 5개소→34개소 확대, 1천개 일자리도 창출
-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인 '명예의전당', '서울시 보훈회관'도 신규 추진
- 호국 역사성·상징성 담은 '보훈테마거리' 조성, 공원·도로 등 명칭 부여
- 보훈단체 연 600만원 운영비·사무실 임대료 신규 지원 등 보훈단체 활성화
- 박 시장, "나라 위해 희생·헌신한 분들과 후손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 받도록 할 것"

오늘날 국민소득 2만4천 달러, 경제규모 세계11위의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36년 일제강점기부터 6.25전쟁과 베트남전쟁, 민주화 운동까지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. 그러나 그들의 빛나는 공적에 비해 현실적인 대우와 예우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.

- 이에 서울시는 4대 목표 15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최초의 「서울시 보훈종합계획」을 발표, 서울시내 12만 명의 보훈가족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보훈서비스 제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 - 이번 계획은 6월6일 현충일 방문을 시작으로 7월 청책워크숍 개최 등 총 23회에 걸쳐 240여 명의 시민·전문가·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됐다.
 - 현재 서울에는 애국지사 및 유족 1,941명, 참전유공자 5만 6,593명 등 국가보훈대상자 12만 8,17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, 이 중엔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도 1,029명(0.8%)이나 된다.

- 박원순 시장은 제6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(화)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「서울시 보훈종합계획」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갖고, “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첫 걸음”이라며 “나라를 위해 희생·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품격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〈참전유공자 5만여명 명예수당 월 3만원→5만원 애국지사 44명 예우수당 신설〉

- 첫째, 서울시는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명예·예우·위문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.

- 우선 서울시는 6·25나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지급되는 월3만원의 명예수당을 ‘14년까지 매년1만원씩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. 여기엔 156억이 추가 투입된다.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투입 예산 및 수혜자는 '12년(50,200명) 180억 원 → '13년 252억 원 (52,500명) → '14년 336억 원(56,000명)이다.

□ 아울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44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새롭게 지급하고, 사망 시 조의금으로 100만원도 지원한다. (13년 61백만 원 소요)

○ 애국지사는 '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'에 따라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펼친 유공자로서, 현재까지 생존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44명이다.

□ 애국지사 중 희망하는 가정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'애국지사의 집' 문패를 달아드리는 방안도 추진한다. 문패 디자인은 재능기부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.

〈기념일 위문대상 매년 2천명씩 확대, 문화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 위로〉

□ 3.1절, 8.15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위문대상도 '12년 현재 1만 880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2,000여 명씩 확대하기로 했다. 위문 대상에게 3~10만원을 계좌로 지급,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. 아울러 우수 보훈가족과 시민을 선정해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이다.

□ 내년 80명을 시작으로 '저소득 보훈가족 국내여행 보내드리기'가 매년 본격화되고, '보훈회관 여가프로그램 연계운영', '찾아가는 행복 콘서트 개최'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데도 나서게 된다.

- ‘저소득 보훈가족 국내여행 보내드리기’는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‘행복 만들기 국내여행’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.
- ‘보훈회관 여가프로그램’은 자치구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해 보훈가족에 맞게 지원되며, ‘찾아가는 행복콘서트’는 우선 올해 9월 보훈가족 300명을 남산국악당으로 초청해 판소리, 전통춤 등 전통공연을 펼쳐 위로할 계획이다.

〈보훈병원 인근 3개지구 공공임대주택 755호 특별공급 전세 '보훈의 집' 운영〉

- 둘째, 서울시는 보훈가족에 대한 주거, 의료, 생활,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인근 3개 지구(고덕강일, 오금, 위례 신도시)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최대 10%인 755호까지를 ‘14년부터 보훈가족에게 특별 분양한다. 이는 중앙보훈병원 이용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다.
- 더불어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거리가 멀거나, 지방에서 상경해 중앙보훈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가족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인 ‘보훈의 집’도 지원한다.
- ‘보훈의 집’은 다세대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 2가구 5명을 시작으로, ‘14년 4가구 10명까지 확대한다.

〈독립유공자 지정병원 시립병의원 5개소→34개소로 확대 1천개 일자리도 창출〉

- ‘독립유공자를 위한 지정병원’도 현재 시립병원 5개소에서 내년엔 9개 시립병원 전체와 25개 보건소 등 34개소로 확대 지정된다.

- 지정병원에선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현재 서울시내 대상자는 1,940명이다. 서울시는 연로하신 독립유공자들이 되도록 집 근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원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.

-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2,000여 가구의 식료품, 생활필수품, 겨울철 김장 등을 지원하고, 일자리를 원하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해설사, 환경정리, 교육강사 등 총 1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원할 계획이다.
 -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필수품(500가구)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희망 마차와 연계 추진, 식료품(500가구)은 기초푸드마켓과 연계 추진, 겨울철김장(1000가구)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.
 - 일자리는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·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.

〈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인 '명예의전당', '서울시 보훈회관'도 신규 건립 추진〉

- 셋째,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 「명예의전당(가칭)」 과 「서울시 보훈회관」 건립도 각각 추진된다.

- 「서울시 보훈회관」은 마포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예정 부지에 5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예정이며, 「명예의전당(가칭)」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순국선열들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으로 건립예정이다.
-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동안 각자 흩어져 있던 서울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하게 되며, 기본적인 사무실 이외에 보훈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보훈 전시관과 카페, 식당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선다.
- 시는 올 하반기 국가보훈처,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명예의전당과 보훈회관 각각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에 들어간다. 보훈회관의 경우 '13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거쳐 '14년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사회복지기금(총 618억 원)에 '보훈 분야'도 새롭게 포함시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, 보훈단체 육성에 일부 운용할 계획이다.

〈호국 역사성·상징성 담은 '보훈테마거리' 조성, 공원·도로 등 명칭 부여〉

-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호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, '보훈테마거리'를 조성하고,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이나 도로 등에 보훈 관련 명칭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.
- '보훈테마거리'는 우선 내년에 자치구 1개소에 조성한 후 확대할 계획이며, 향후 지역별로 기려야 할 인물이나 덜 알려진 인물을

선정해 동상, 흉상 등의 상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.

- 향후 '서울시 지명위원회' 위원으로 보훈전문가를 위촉하여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도로 등에 보훈 관련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.

- 예컨대 윤봉길 기념관이 있는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은 '윤봉길 공원'으로 개명을 추진하기 위해 공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.

〈보훈단체 연 600만원 운영비, '상이군경복지관'은 점심급식 등 신규 지원〉

-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다각도로 강화한다. 시는 9개의 공법 보훈단체별로 연 600만 원의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, 사무실이 없는 2곳(특수임무유공자회, 월남전참전자회)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.
- 더불어 서울시는 보훈단체를 '사회적 약자기업'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, 이용정원 20인 이상 규모의 자치구 지회사무실은 난방비, 운영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로당 인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 - 보훈대상자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구 지회사무실을 경로당으로 인가할 경우 난방비(연 300만원), 운영비(연 360만원), 양곡(20키로 연 6포대)등의 지원이 뒤따른다.
- 현재, 매일 1,6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'상이군경 복지관'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이용자 모두 무료로 점심을 드시도록 하는 한편, 노후한 컴퓨터실(별관 1,000㎡)을 재정비하고

기능을 보강해 쾌적한 쉼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.

- 급식지원은 '13년도부터 이뤄지며 '13년도 4천만 원, '14년도에 8천만 원이 투입된다. 노후 시설 재정비에는 '13년 3억 원이 지원된다.

- 박원순 시장은 “앞으로도 서울시는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가 품격 있는 정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별첨 : 보훈관련 용어 정리

용어	내용 정리	비고
순국선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대의 의사(義士)와 열사(烈士)를 말함. • 현재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순국선열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신 분들을 가리킴 ※ 학계: 순국선열(광복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) 호국영령(광복이후 사망한 모든 국가유공자) 	
호국영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국영령은 호국과 영령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이들의 영혼들을 높여 이르는 말 • 죽어서도 나라를 보호하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 	
호국선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순국선열’처럼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은 같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을 가리킴 	
의사(義士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거나 외세에 저항하다 의롭게 돌아가신 선열 • 이들 중 주로 무력이나 행동으로써 항거하며 큰 공적을 세우고 의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가리킴 • 그러나 군인에게는 이 호칭을 쓰지 않음 	
열사(烈士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한 분이나 무력을 행사했으나 뜻한 바대로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희생되신 분들을 가리킴 • 즉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죽음으로서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정신적 저항의 위대성을 보여주신 분들을 말함 	
지사(志士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분들과 1945년 8월 15일 밤 12시 이후 생존하다 사망하신 분들이나 현존하고 계신 분들을 칭하는 말 	
애국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•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	
무공수훈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공훈장 : 전시(戰時)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•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을 받은 자 	
보국수훈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국훈장 :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 • 보국훈장(통일, 국선, 천수, 삼일, 광복)을 받은 자 	

용 어	내 용 정 리	비고
희생·공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-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-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-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	
국가보훈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	
특수임무 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된 자 ※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·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 	
고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 	
고엽제 후유증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64.7.18~1973.3.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·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각 호(폐암, 후두암, 기관암 등 16종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	
고엽제 후유의증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각 호(지루성피부염, 뇌경색증, 근질환 등 13종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	
참전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.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)된 군인 •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.7.8일부터 1973.3.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• 6.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• 6.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)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 •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.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	



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



일제강점기부터 6·25 전쟁과 베트남 전쟁, 민주화 운동까지...
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당신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.

일제강점기(1910~1945) 애국지사 및 유족

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른
○○○님은 허름한 집에서
몸이 불편한 부인과 함께 살면서
노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

6·25전쟁(1950~1953) 참전유공자

18세 나이로 입대해 동해안 전투에
참여했던 박원빈님은 참전명예수당
월 18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

6·25전쟁(1950~1953) 무공수훈자

이규태님은 17세 나이로 학도병에
입대,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워
혁혁한 무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
받았습니다.

베트남 전쟁(1964~1973) 상이군경

베트남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
상이군경 회원들은 자활하여
상이군경복지회관을 이용하고
있습니다.

베트남 전쟁(1964~1973) 고엽제 전우

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송성용님은
중앙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
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민주화운동(1980) 민주화 유공자

○○○님은 5·18 광주민주화운동
당시 현장을 외면한 언론보도에
항의하며 신문제작거부에 앞장서다
강제 해직당했습니다.

서울에 계신 국가보훈대상자는 128,175명입니다

(출처 : 서울지방보훈청 통계자료)

● 애국지사 및 유족

★★★★★★★★

1,941



● 전몰군경유족, 미망인

★★★★★★★★

10,084



● 특수임무유공자

★★★★★★★★

972



● 참전유공자(6·25, 월남전)

★★★★★★★★

56,593



● 상이군경

★★★★★★★★

25,292



● 무공수훈자

★★★★★★★★

21,133



● 고엽제 전우

★★★★★★★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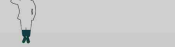
8,510



● 민주화유공자

★★★★★★★★

860



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

명예로운 보훈가족

-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
- ②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강화
- ③ 보훈가족 위문·감사
- ④ 보훈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살기 좋은 보훈가족

- ① 보훈가족 주거안정 지원
- ② 독립유공자를 위한 지정 병원 확대
- ③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
- ④ 보훈가족 일자리 신규 창출

튼튼한 보훈가족

- ①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
- ② 서울시 보훈회관 건립 추진
- ③ 서울시 보훈기금 운용
- ④ 보훈테마거리 조성 및 보훈명칭 부여

함께하는 보훈가족

- ①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지원
- ② 보훈단체 사업지원 확대
- ③ 상이군경복지관 지원



보훈가족이 행복한 희망도시 서울

서울시는 보훈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
서울시민은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